

“루마니아 중보기도 24시”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빠체 보우어!

2014년 한해동안도 시작부터 마침까지 변함이 없는 사랑과 기도로 함께 레슬링 하여 주신 중보기도 식구들에게 감사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에 다하지 못한 사역들을 다시 가슴에 품고 2015년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자 합니다.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변함이 없는 사랑과 기도로 저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끝내는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릴것을 믿습니다.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시간 기도로 성령님과 독대하며 24시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굳게 지켜 가정예배를 회복하여 끝내는 이웃사랑 구원의 방주를 완공하여 신부로 준비를 다하다보면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타고 오실것을 믿습니다.

중보기도 식구들을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구전선 루마니아 갯세마네 집시교회 공동체에서

박창수 심은식 선교사 드림

Paul Park/ jesusromania@gmail.com/ ☎+40-722-628113

La multi Ani si sarbatoare fericite!(라 물찌 아니 쉬 씨르버또아레 페리치떼!)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며 가정과 온식구들에게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세요!



♥만나와 매추라기 후원: 박창수 농협 074-12-130681♥

저물어 가는 2014년 마지막 남은 두주간의 달력을 바라보면서 한주간 금식하며 울며 재를 뿌리고 지난 51주동안 아버지앞에서 달려온 선교지의 삶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웃기를 여미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추호라도 숨김이 없이 에덴동산에서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영성으로 한점 부끄러움이 없이 서 있기를 점검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자된 아내와 함께 생명권도 소유권도 자유허도 존 재하지 않는 종의 영성으로 아버지 앞에서 서 있었는지를 점검합니다.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성앞에 우리 부부 스스로가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본주의 이성과 논리앞에서 우리가 좋아하고 바라는 사악한 자존심과 교만하며 불순종하는 자아를 환경과 상황에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선교지를 지켜왔는지를 점검합니다.

영적인 삶에서는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했는지를, 24시간 중보기도로 예배하는 자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를 받으며 순종했는지를, 가정을 지키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피로 양자 받은 9명의 자녀들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했는지를, 선교사의 눈 높이를 정해놓고 저들을 옥박지르고 소리지르며 어깨에 힘주고 군림하는 선교사가 되지는 않았는지를,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삶에서는 두 얼굴을 가지고 저들을 외면하며 차별을 하지는 않았는지를, 이것저것 생각이 나는 데까지를 기도속에 아버지와 독대하며 하나하나 점검하며 종의 주제에 주인 앞에 월권행위를 한것이 있다면 용서를 해 달라고 때를 써 봅니다.

신체적인 삶에서는 건강증만으로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듬뿍 안겨 드리는 마음과 육체가 건강한 모습으로 달려왔는지를 점검합니다. 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순간 순간 타협하면서 내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 건강을 해치기 까지 혹사시키지는 않았는지를, 아버지가 선물로 하사하신 24시간을 아버지께 순종하며 시간 관리 철저하게 했는지를, 때론 드라마에 폭빠져서 아이들과 약속한 훈련 시간들은 메너리즘으로 타협하며 아버지의 시간을 내 맘대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합니다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점검해 봅니다. 이웃사랑 실천에 올인을 했는지를, 아버지가 열어주신 49가정 구원의 방주를 짓는일에 생명드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노동에 시달린다는 핑계로 타협하며 한번이라도 더 방문하지 못하고 축복기도를 해주지 못하고 권면해주지 못한것들을 후회하며 "아버지께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다시 붙들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식구가 된 여러 지체들을 알량한 자존심과 자아를 내세워 내 눈높이에서 저들을 대하고 내생각 내것 내방식만 고집하며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려 들지않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아버지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지를, 사랑하는 아내와 나로 인하여 낙심한 지체들은 없었는지를, "아버지! 알게 모르게 자존심과 자아와 고집을 앞세워 지체들을 원망하거나 정죄한 것들이 있었다면 용서해주세요.""

교육적인 삶도 점검해봅니다. 먼저는 9명의 자녀들앞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양떼들의 영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교육적 상태를 잘 파악하여 개개인에게 필요하고 양약이 되는 영양제를 골고루 나누어주기 위하여 눈물로 연구로 고민으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반죽하고 풍성한 양념을 골고루 넣어서 풍성한 만나로 배불리 먹었는지를, 선교사 스스로 퇴보되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연구와 독서를 개울리하지 않았는지를, 양떼들의 삶을 24시간 불철주야 지켜보고 점검하며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참 목자의 삶을 드렸는지를 점검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 할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세상과 물질을 초월하여 이름없이 빛도없이 아버지만 이 종을 인정하시면 오케이, 보잘것 없는 이종을 양자로 삼아주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에 백골난망하여 몸밖에 드릴것없어 이몸바치기를 소망하며, 세상도 불신자도 목회자도 선교지도 어느 한곳에 선한것을 찾을수가 없고 모두가 짬뽕이 되어버린 세상, "아버지! 세상이 철학과 이성과 논리를 구하며 타협할때,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본주의가 선교지를 짬뽕으로 만들어서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타협하도록 부추기고 우쭐댈때, 가정의 제사장으로 명받은 164센치미터 주의 종 박창수 선교사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가족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만을 구하고 찾고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는 종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24시간 중보기도의 삶으로 마지막 생을 마치기를 아버지와 굳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속으로 영원히 물려질 2014년을 바라봅니다. 아직 못다한 일들이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건축 공사가 마음에 걸립니다. 5-12학년 장학사업이 그렇고 미생물 유기농법이 걱정이고 자립을 이루지 못한 공동체가 안쓰럽습니다. "아빠 신발이 없어서 오늘 학교에 못갈것 같아요. 신발장에 누가 신었던 신발이 있던데 그것 신고 학교가면 안돼요" 라고 학교갈 시간에 찾아온 발리를 바라보면서 속내 하염없는 눈물로 답을 했습니다. 공동체 구석구석 아직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이 눈에 선하지만 몸은 따라주질 않아서 아버지하고 상의를 하면서 많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겨울떨감이 모자라서 걱정이 앞서니 부르슬리가 나무를 아껴때며 겨울을 잘 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교회는 누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는지, 보일러는 누가 항상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하는지, 전기요금과 싸우며 절전을 위하여 누가 항상 불을 끄는지, 아는것도 관심도 없는..... 그쳐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쁨충만한 하나님의 형상들..... 천진난만하고 초롱초롱 빛나는 눈동자를 굴리며 "목사님!!!!!!" 반가히 품에 안기는 유치부와 1-4학년 어린이들을 바라볼때면 향후 20년후에 비전이 가슴에 두근거리고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중보기도 식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에수여 오서 오시옵소서!